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28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윤 택 / 편집인 : 김소영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3년 2월

경제학부 석좌교수로 노벨상 수상자 Thomas J. Sargent 임용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교수가 2012년 9월 7일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경제학부 석좌교수로 부임하였다. 노벨상 수상자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전트 교수는 UC Berkely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대가이다. 사전트 교수는 197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을 적용한 선구적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학계에서 이미 노벨상 수상이 유력한 석학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 분야에서 1995년에 이미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Jr.)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또 다시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크리스토퍼 심즈(Christopher A. Sims) 교수와 함께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Empirical Research on Cause and Effect in the Macroeconomy)'의 공로로 사전트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은 사전트 교수의 업적이 단순히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료를 통해 실제 경제에의 적용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점,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주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다양한 행동을 할 경우에까지 포함하여 전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경제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사전트 교수의 이번 임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후 추진해온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첫 성과로 우리 교수 및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트 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최근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대학원과정에서 "거시경제학특수연구 (부제: Dynamic Macro Models and Robustness)" 과목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며, 학사과정에서는 "거시경제학특강 (Special Lectures in Macroeconomics :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Theory and Facts)" 과목을 우리 학부의 윤택 교수와 공동강의를 할 예정이다. 사전트 교수의 학문적 역량과 진지성이 강의를 통해 본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트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함께 있음에 따라 관련 분야의 세계적 학자들의 방문과 공동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학부에 세계 학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학길 교수 정년기념 특별강연
-제 4의 길을 가야 하는 한국 경제

2012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표학길 교수의 정년기념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에는 경제학부 교수진, 경제학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뿐 아니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었다. 강연은 "제 4의 길을 가야 하는 한국 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표학길 교수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 단계를 △절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압축성장기(1의 길) △전환기적 민주주의 아래 경제발전기(2의 길) △분배우선-저성장 기조에 따른 성장잠재력 소실기(3의 길) △성장잠재력 회복과 한국경제 선진화 모색기(4의 길)로 구분했다. 표학길 교수는 "제4의 길은 복지, 경제민주화 등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inclusive) 성장'이란 국민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산층 보호, 중견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표 교수는 이어 "교육 · 기술 투자 제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랭킹 서울대 경제학 40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는 2012년 6월 28일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랭킹'을 발표하였다. QS는 수많은 개별학문을 29개 분야로 묶은 뒤 동료학자들이 해당 대학 분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썼는지, 기업이 그 대학 졸업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세 가지 지표에 따라 학문분야별 랭킹을 매겼다. 그 결과 서울대의 경제학이 40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INDEX ❶ 경제학부 주요소식 ❸ 교수수상 및 동정 ❹ 교수 신간 안내 ❺ 동문기고 ❼ 재학생기고 ❾ 동아리소개 ❿ Bk21사업단 소식 ⓫ 경제학부단신 ⓬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안내

경제학부 학술행사

Summer Econometrics Workshop 2012

경제학부는 본교 경제연구소 산하 계량경제센터와 공동으로 「Summer Econometrics Workshop 2012」를 2012년 7월 27일 사회과학대학 16동 655호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개의 세션으로 오전에 1개 세션, 오후에 2개 세션이 진행되었고, 각 세션에는 2번의 발표가 있었다. 1부 세션에서는 황윤재 교수(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진행으로 이태휘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가 'Forecasting Using Supervised Factor Models'를, 안승찬 교수(Arizona State University and Soyang University)가 'Eigenvalue Ratio Tests for the Numbers of Factors'를 발표하였다. 이석배(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가 진행한 2부 세션에서는 류근관 교수(Seoul National University)가 'Weighted Least Squares in Econometric Damage Estimation'을, 송경철 교수(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가 'Optimal Estimation of Nonregular Parameters with Transformation-Scale Equivalent Maps'를 발표하였고 3부 세션에서는 김재영 교수(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진행 아래 서명환 교수(London School of Economics)가 'Estimation and Forecasting with Misspecified Structural Break Models'를 한희준 교수(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가 'The Cross-Quantilogram and Testing Directional Predictability between Time Series'를 각각 발표하였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박사과정 학생은 '사실 더운 여름이라 참석을 고민하였는데 온 보람이 있다'고 밝히며 '전공으로 두고 있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아 준 뜻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APIC 2012 & SJE International Symposium

본교 경제학부 BK21사업단(단장 : 이근 교수), WCU 사업단(단장 : 김병연 교수), 경제연구소(소장 : 이영훈 교수)는 본교 경영전문대학, 인하대 SSK팀, 호주 멜버른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의 IPRIA(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of Australia) 및 일본의 히토슈바시 대학(Hitotsubashi University)의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등 국내외 9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2012년 10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본교 멀티미디어 강의동 83동에서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APIC은 2010년 1월에 호주 맬버른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혁신(Innovation)에 관심을 가진 Asia-Pacific 지역 학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학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SJE International Symposium'(주제 : Innovation & Economic Growth in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과 연계되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BK21사업단 단장인 이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초빙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13일 오전에는 전체회의(Plenary Session) 1부와 함께 '20th Seoul Journal of Economics Symposium (session 1)' 과 'Special Session: Innovation in China, Korea, and Japan'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20th Seoul Journal of Economics Symposium (Session 2)'가 진행되고 전체회의 2부가 이어졌다. 14일 오전에는 전체회의 3부와 4부가 전일이었던 13일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회의 5부와 6부가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대학원생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하여 많은 교수님들의 발표가 매우 흥미로웠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참석의 기회가 실로 새롭고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The 9th Joint Confer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Seoul National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제9회 서울대 · 동경대 공동 컨퍼런스가 2012년 11월 16일 사회과학대학 3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동경대의 후쿠다 신이치 교수와 우리 학부 이영훈 교수의 개회 연설로 시작된 컨퍼런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에는 후쿠다 신이치 교수의 진행으로 세션 1부가 전개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스즈키 미치오 교수로 'Investment and Borrowing Constraints : Evidence from Japanese Firms'를 발표했고 우리 학부 김영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뒤 이어 우리 학부 윤택 교수가 'Optimal Monetary Policy with Consumer Search'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동경대의 아오키 코스케 교수가 진행했다. 약 두 시간의 점심 오찬 뒤에는 이영훈 교수의 진행 하에 세션 2부가 시작 되었다. 우선 동경대의 심승규 교수가 'Unemployment and Inequality after Trade Liber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본교 이석배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뒤이어 본교 김병연 교수가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 A Pseudo-panel Approach'란 주제로 발표하고 동경대의 후지모토 준이치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일찌감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종료될 때 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던 한 석사과정 학생은 '서울대학교와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학교 간의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로서 서울대학교 학생임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며 '본인도 교수님들처럼 먼 훗날 학자의 길을 걸으며 이런 학술 교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이 참으로 많았으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보람찬 자리였다' 고 소감을 전했다.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7년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본 대학교와 한국경제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표학길 교수가 2012년 2월에 정년퇴임한다. 표학길 교수는 1970년 본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고 도미하여 1977년 미국 클라크大(Cla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표학길 교수는 1977년 조교수로 본교 무역학과에 부임한 이래 시장경제의 이해,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계량경제학연구, 한국경제의 계량분석세미나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특히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후배 연구자들을 양성해 한국사회의 경제발전 및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경제학자로서 표학길 교수는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 비용 추계(1970-2006)』, 『국제무역론』 등 수십 편의 저서와 'Estimat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Contribution of ICP, and Resource Reallocation Effects in Japan and Korea', 'Financial Crisis and Relative Productivity Dynamics in Korea: Evidence from Firm-level Data(1992-2003)' 등 수십 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 경제학 연구 분야 중에서 거시계량 경제학 연구 및 국제적 동향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써서 일관된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본적 연구를 한 점에서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에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학계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Asia KLEMS 위원회 위원장직 등을 맡아 경제학자들의 연구교류 활성화 및 정부기관의 연구 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내에서도 표학길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장, 사회과학대학 연구부장, 세계경제연구소장, 사회과학대학 통상협상연구실장 등의 보직을 맡으며 학생지도와 학사업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UN본부 CDP 위원으로 위촉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가 2013년 1월1일자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UN 본부의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UN-CDP는 개도국 개발계획에 대한 UN의 상설 자문기구로서, 전 세계은행 총재인 McNamara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Schwab 등이 위원을 역임한바 있고 이번 위촉에는 세계은행 총재 물망에 오른 Ocampo 전 칠레 재무장관 겸 콜럼비아대 교수도 이교수와 같이 위촉되었다.
이근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 교수는 과기정책 분야의 유명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editor 활동 등 기술경제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교수의 연구성과물들은 현재 google scholar 기준으로 총 2,000회가 넘은 피인용도를 보이고 있다.

이석배 교수 첫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우리 학부의 이석배 교수가 만 45세 이하 역량 있는 소장 경제학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이 2012년 신설한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상의 주 목적은 앞길이 유망한 젊은 경제학자를 일찍 발굴함으로써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여타 경제학도들에게도 선의의 자극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세계 정상급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경제학계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이석배 교수를 만장일치로 제 1회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석배 교수는 미국 대학 진학률과 취업 성과에 대한 장기적 추이를 면밀히 고찰해 취업률이 갖는 의미들을 새로 분석해내는 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행, 박재윤 前교수 명예교수 추대

2012년 9월 1일 자로 김수행, 박재윤 前교수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김수행 교수는 1989년 이후 본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등의 강의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자본론 번역본』,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등의 저서와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과 자본의 대응',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등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본교 경제연구소장, 경제학과장,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에도 공헌한 바 있다. 김수행 교수는 2008년 본교에서 정년퇴임하기 전까지 19년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경제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박재윤 교수는 1971년부터 1992년까지 21년간 본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화폐금융론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그리고 『한국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민간저축형태에 관한 연구』, 『화폐금융원론』,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의 저서와 '저개발경제의 화폐수요', '서울 비근로자가계의 저축형태', '미 · 일의 금융혁신과 한국의 금융개혁', '금융자유화의 업무영역조정'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본교 기획실장과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퇴임 이후에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행정적 업적을 남겼다.

경제학부 강광하 교수 별세

서울대 경제학부 강광하 교수가 2012년 8월 22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본교에서 1975년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도미하여 1981년 텍사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한 후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본교 기획실장, 경제연구소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지식

경제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31년간 교육과 연구 및 대외 활동을 통해 본교와 한국경제학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경제계획과 경제발전', '불완전경쟁에서의 수직 통합효과 분석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 경제계획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였다. 고인은 2012년 8월 30일 정년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배정혜씨와 1남 1녀가 있다.

홍원탁 명예교수 별세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2년 10월 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2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1966년 콜롬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국제경제학에 관한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2년 4월에 '수당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유족으로 부인 이여몽씨와 1남 1녀가 있다.

이인호 교수 서울대 평의원회 사회대 의원 선출

2012년 8월 23일 사회대 학과장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투표한 결과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제학부 김선구 교수의 후임으로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가 보궐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준구(B조), 류근관(A조) 교수 2012년 춘계 서울대 교내 테니스 대회 우승

2012년 5월 12일 오후 1-6시 사이 열린 서울대 전체 교수 테니스 대회에서 A조 10개 복식팀, B조 6개 복식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가운데 경제학부 류근관 교수가 A조 우승, 이준구 교수가 B조 우승을 차지해 경제학부가 우승을 독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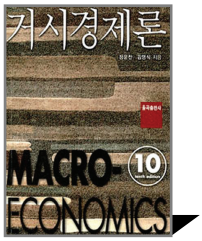
동아리 수상소식

LES 2012년 제 11회 모의공정위 심판경연대회 국무총리상(대상)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LES; Law and Economics Society, 지도교수 이상승)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정거래조정원 주관으로 2012년 8월 28~29일 양일간 펼쳐진 '제 11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전국의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14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LES는 동 대회에 10번 출전하여 6번 우승하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LES는 '(주)대한거래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관한 건'을 주제로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자료를 통해 주식매매체결서비스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연과정에서도 노래와 율동 등 뮤지컬의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LES 소속 학생학생들은 "대회준비 과정에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지도교수님이신 이상승 교수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날카로운 지적은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LES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교수 신간 안내

거시경제론 10판



정운찬, 김영식 공저
율곡출판사 (2012년 8월 10일)

금융과 거시경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기본 개념 및 이론 또는 모형을 소개한 책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장기적 경제성장에서 단기적 경기변동 분석으로 순서를 조정했으며, 오늘날까지 거시경제 이론 체계의 두 축을 형성해 온 고전학파적 접근방법과 케인즈적 접근방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 두 거시이론체계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 논의 중인 거시금융경제학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각 장의 연습문제에는 최근의 거시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문제와 지난 2년 동안 출제된 각종 고시 문제를 추가하였다. 독자들이 경제학원론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복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신경향 인문계 구술면접

이근 외 20인 공저
이슈투데이 (2012년 9월 10일)

이 책은 서울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구술면접 문제와 답안을 작성하고 면접의 핵심이론을 담아 펴낸 책이고,『구술면접의 연습과 실전』은 이 방면에서 이름 높은 교사와 강사들이 엮은 실전 대비서입니다. 서울대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구술면접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관점과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려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경제원론B

이준구, 이창용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년 7월 27일)

현대 사회에서 경제지식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다. 이 책은 국민경제와 물가라는 거시경제이론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현실의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경제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길러 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세트 (전3권)

이지순, 서용석 공저
박영사 (2012년 12월 25일)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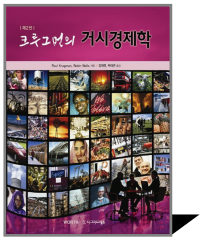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조건 : 성장 · 환경 · 복지의 선순환'이란 연구를 올해 초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 전략에 '복지'의 문제를 연계하여 성장, 환경, 복지의 삼각 축이 조화롭게 선순환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경제학부 BK21사업단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 부여(경제학 분야에서는 1등)

우리 경제학부 BK21사업단(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은 2단계 BK21사업 종합평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단(팀)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우수'등급을 부여받았으며, 현재 마지막 사업 년도인 2012년(7차년도) 2학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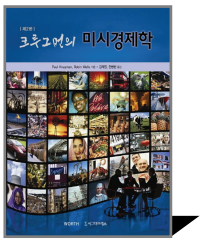
크루그먼의 거시경제학 (2판)



Paul Krugman, Robin Wells 지음
김재영, 박대근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2년 08월 20일)

『크루그먼의 거시경제학』제 2판은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와 논의가 풍부하게 담긴 경제학 교재다. 각 장에서 현실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관을 키워주고자 했다. 또한 교육학적인 내용들로 학습에 도움을 주었으며, 각 장들은 쉽고 흥미롭게 서술되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준비할 때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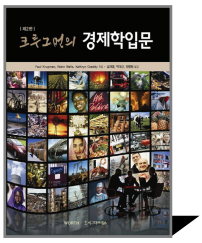
크루그먼의 미시경제학 (2판)



Paul Krugman, Robin Wells 지음
김재영, 전병헌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2년 07월 30일)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2판』에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와 논의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 경제학을 가르치는 분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특히 이번에는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2판』중 미시경제학 부분을 추려서 발간된 크루그먼의 미시경제학, 제2판』을 따로 번역서로 펴내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원론을 한 학기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미시경제학 부분과 거시경제학 부분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크루그먼의 경제학입문 (2판)



Paul Krugman, Robin Wells, Kathryn Graddy 지음
김재영, 박대근, 전병헌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2년 08월 20일)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원 로빈 웰스, 브랜다이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 캐스린 그래디의 『크루그먼의 경제학입문』. 한 학년 강의를 염두에 둔 『크루그먼의 경제학』(시그마프레스)를 한 학기 강의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다. 단순히 『크루그먼의 경제학』을 축약하기보다는 중요한 개념을 한 학기 강의를 통해 잘 소화하도록 꾸몄다. 경제현상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학에 흥미를 갖도록 인도한다. 다양한 현실 사례와 주제를 수려한 문체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왕윤종

나는 지금 북경에서 이 글을 쓰지만, 선후배 동문들이 이 글을 읽을 즈음엔 그리운 고국 땅을 밟고 있을 것이다. 3년간의 SK 차이나 근무를 마치고 귀임 준비 중이던 차에, 마침 경제학부 소식지에 동문 기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선배 동문들께서 쓰신 글들을 읽어 보니 학창 시절 이야기도 있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공유하는 내용도 있었다. 무슨 얘기를 쓸까 고민하다가 지난 3년 나의 중국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겸, 나의 직장 경험과 내가 보는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로 충분히 나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짧은 이야기가 후배들의 진로 설계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 또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 자신을 소개하기로 하자. 왜 북경까지 가서 일하게 되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1981년에 입학해서 1985년 학부를 졸업하고 1987년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쳤다. 당시 80년대 상황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했던 시절, 나 역시도 이념의 방황기를 거쳐 3학년 때쯤 제대로 공부를 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야 비로소 미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81학번은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첫 해여서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선배 학번에 비해서는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기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특별히 많다. 요즘 대학 동기 모임을 하면 교수들이나 연구소 근무하는 가방 끈 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1993년 미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에서 직장 경험을 시작했다. 처음 맡은 일은 당시 종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가져올 제도적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파리를 오가며 OECD 가입 협상을 실무적으로 준비했고, 한미통상관계, 외국인직접투자 및 자본자유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정부로부터 차출되어 실무협상에 참여하였다. 이후 국제금융 분야가 나의 주요 관심 연구주제가 되었다. 외환제도, 환율,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연구의 영역이 넓어졌고,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벌써 10년 전 내가 연구했고 주장했던 많은 이슈들이 아직도 해결에 큰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싶으면서도,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와는 별개로 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던 나의 소견들이 조금씩 현실에 반영되어 가는 것을 보면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 변화하고 있나 보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연구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나는 국제금융 분야에 있어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유명한 소장학자가 되었다. 중국, 일본 및 ASEAN 국가들의 학자들과 빈번히 교류를 하였고, 중국에 한국의 국제금융 분야 변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인민은행, 재무부, 사회과학원 등의 초청으로 발표 기회를 가지면서 중국의 관료, 학자들과도 교분을 쌓았다. 그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고,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며 국제금융 분야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던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2004년 11년을 몸담았던 국책연구소를 떠나 SK 경영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민간 연구소로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다. 마침 SK 그룹은 지배구조의 변화, 글로벌 경영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나는 국제금융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경영현장의 실무와 결합해 새로운 변화를 즐길 수 있었다.

SK 그룹은 국내에서 에너지, 석유화학, 통신 등 내수 분야에 치중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 지난해 수출액(6백억 불)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5,950억불, 지식경제부 추정치)의 10%를 상위할 만큼 꾸준히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평소 글로벌 경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SK그룹이 중국 중심의 Globalization을 추진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 남다른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SK그룹은 중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국내 기업보다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LG그룹 등 다른 기업들에 비해 SK그룹의 중국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SK의 핵심 업종이 지닌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동통신 분야는 물론이고 정유, 화학 산업에 진출하려면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말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정부가 기간산업을 외자기업에 쉽게 허가해 줄 까닭이 없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SK 그룹의 중국 사업전략은 기존에 한국에서 보유한 핵심역량에 기반한 사업 개발방식으로부터 중국정부가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SK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나에게 중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SK 그룹의 중국 사업전략 수립에 역할을 담당하도록 SK 중국경영경제연구소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처음 부임했을 당시 SK 중국경영경제연구소는 신문을 오려서 동향보고를 하는 매우 유치한

06페이지에서 계속

한중 수교20주년 기념 리셉션 및 한중경제계 지도자회의

중국진출 CEO와 중국 상무부간 고위급 좌담회

05페이지에 이어서

수준이었다. 연구원들의 열정은 읽을 수 있었지만 연구방법론도 잘 모르고 체계도 잘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우선 연구소의 조직을 통신, 에너지, 경영경제 분야로 나누어 SK그룹의 중국 사업을 지원하면서 중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주목하였다. 중국에 있었던 3년 중 절반은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기획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부여 받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업경영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라는 그룹의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었다. 이어 2012년 한 해 동안 SK 그룹의 장기 중국전략(Grand China Strategy)를 수립하는 책임을 맡았다. 현업에서 당장 사업개발을 하는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그룹의 장기 전략을 작성하는 일은 다소 한가로운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중국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나의 소견을 얘기하겠다. 중국은 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의 성과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는 거대 신흥경제권이긴 하지만, 아직 도시화 수준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 물류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이다. 인구의 50%가 아직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불균형 발전의 결과 연안지방에 비해 내륙지방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 지역, 계층 간 불균형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관리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소요로 발전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책자를 통해서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 익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거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중국학자들도 중국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을 인식하는 틀로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고도성장의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다.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연간 2천억 달러를 넘게 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은 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만큼 중국과 한국의 경기변동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언론들은 미국 발 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

한-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

CRI(중국국제라디오방송) 인터뷰

기 못지않게 중국 발 경착륙 위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 작년부터 중국경제 역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공급의 정체에 따른 인구 보너스의 축소, 자본효율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여전히 낮은 도시화율은 중국의 지속성장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도시화가 매년 1%씩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20년 후에나 비로소 7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도시화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며,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중국은 내수에 기반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0년 정도 중국경제는 7-8%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성공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경우 다시 10년 정도 6%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중국정부의 부정부패,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지방정부의 채무, 국유기업 독점과 비효율성, 빈부격차와 사회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무난하게 극복할 것이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한국 역시 정말 위기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국정부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2050년 대동사회 진입이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나는 중국이 정치,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 역량을 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치역량 측면에서 중국은 매우 안정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말은 예측가능하고,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진 않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실무를 통해 행정능력을 검증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나 엘리트 공무원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10년을 여는 시진핑 정권은 부패척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둘째, 정책집행 역량 측면에서 중국은 당 영도의 원칙하에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다. 엄격한 성과위주의 평가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한 국정 agenda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6조 달러를 초과하는 중앙국유기업의 자산은 중국정부의 재정 안전판이다.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해도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00%, 20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중국정부의 재정 안정성은 우려할만한 사항이 전혀 아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은 결국 내수위주의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 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 중심의 도시화를 추진할 것이다. 도시화는 소득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소비 증대를 통해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 등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창의와 참여를 통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배구조 전반의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지난 10년간 후진타오 정권 하에서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을 타파하고 실질을 중시하는 시진핑의 실사구시 정신이 향후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시대를 여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학력 및 주요경력〉
- 1962년 서울 생
-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졸업 (81학번)
-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 SK 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상무)
- SK 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전무) 겸 기획담당 수석부총재
- 중국 한국상회 회장

〈편저 및 저서〉
- A New Financial Market Structure for East Asia
- Financial Governance in East Asia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말라위의 보건개발 프로젝트

김서영 (4학년)

Muli bwanji? 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방금 제가 건넨 인사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말라위(Malawi)의 인사말입니다. 저는 말라위에서 6개월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작년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실증경제학을 응용한 말라위의 보건개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청년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25호의 대학원생 기고에서 정다운 선배님이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니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저는 경제학부 동문들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생택쥐베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좋아하시나요?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어린왕자의 질문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답하지요. 그리고 참을성 있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반 년 동안 노력을 통해 한 뼘 한 뼘씩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말라위를 소개합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령이었을 때는 니아살랜드(Nyasaland)라고 불렸고요. 체와 족, 툼부카 족, 야오 족, 롬웨 족 등이 어울려 살고 있고, 수도는 릴롱궤(Lilongwe), 언어는 앞서 보여드린 치체와(Chichewa)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GDP는 2011년 기준 1인당 860불, 인구의 10% 이상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평균 수명은 54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숫자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곳은 밤에는 은하수가 선명히 빛나고 낮에는 두 팔 벌린 것보다 커다란 무지개가 뜨는 곳입니다. 또 속눈썹이 길고 눈이 반짝대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Azungu!(백인/외국인)"라며 수줍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중학교에 여학생 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러 가면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며 명예로운 사람(Anaphiri)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단골가게에 주인아저씨는 "Afumu, kudula! (대장, 비싸요!)"하며 치체와를 구사하는 이 맹랑한 외국인 여자에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사과 한 개를 더 얹어주는 곳이랍니다.

현지 스탭들, 우리가 실제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말라위의 연구팀은 평균적으로 4명에서 7명의 한국인과 13명의 현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인력의 경우 인턴 2명, 의료 인력 2명, 데이터 입력 직원 4명,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4명, 그리고 이 모두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명 있습니다. 일할 때에는 여느 단체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든 말라위인이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하루의 빡빡한 업무를 충실히 진행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우리는 같이 어울려 수다를 떨 수 있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얼마 전에 첫 딸을 얻은 브라이트는 쉬는 시간에도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 사업 문헌들을 가져다가 읽으며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라드는 현지 주식인 시마(nsima)를 먹으며 교통비가 또 올랐다고 푸념합니다. 스티븐은 저에게 말라위 표 불량식품인 오바마가 그려진 풍선껌을 건네며 맨유의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젤라가 시장에서 새 치마를 사 입고 오는 것, 잘생긴 치칼리포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겐 재미난 수다거리가 됩니다.

물론 말라위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일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외국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교통경찰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시달리는 것, 건기인데도 기어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며칠 앓은 것, 스탭하우스 근처에 블랙맘바라는 독사가 출현하여 모두가 공포에 떤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이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10대 소녀에게 접근하는 중년 남성들인 '슈거 대디'들과 학비를 벌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하는 여학생들의 이야기 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외면하고 싶기보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말라위와 말라위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가릴 것 없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길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EconLit with Fulltext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Malawi를 검색해 보면 HIV Testing, Subjective Beliefs and Economic Behavior, Age at First Marriage in Malawi: A Bayesian Multilevel Analysis Using a Discrete Time-to-Event Model, Gender Relations, Empowerment and Microcredit: Moving on from a Lost Decade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씨름하여 얻은 사회과학 연구 결과들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보이지 않던 큰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안목으로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을 바라보면 말라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실한 전문적인 교육이 말라위의 실업의 큰 원인일 수 있다는 논문을 읽고 타 NGO 활동가들과 제가 하나라도 더 할 일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 후, 저는 봉사활동 중반 이후에 현지 직원들에게 제가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수요 조사 겸 토론을 거친 끝에 7월과 8월에 걸쳐 [현지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시간씩 기초통계와 엑셀을 엮어서 (1)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Excel (2) Collecting and organizing data (3) Understanding and summarizing data (4) Graphs and displays (5) Introduction to probability (6) Calculating basic probabilities (7) Distributions, errors, and beyond 등 7개 주제를 순차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가며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너무나 열심히 수업을 경청하였고, 덕분에 한동안 저는 남보다 늘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수업 준비를 해야 했답니다. 마지막에 세션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에게 "You're one of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we understand the lesson. Zikomo kwambiri.(정말 고마워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목이 메더라고요. 반 년간 내가 '길들인' 동료들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편지는 물론이고 목공예품 등을 잔뜩 챙겨서 떠나보내 주던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 앞에선 환하게 웃고 작별했지만 비행기를 타고는 펑펑 울었다는 것은 비밀이랍니다.

이 글을 읽고 말라위가, 또 나아가 아프리카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까운 곳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가까운 커피숍에 갔는데 말라위 원두를 마주치거나 곧 한국을 방문할 조이스 반다(Joyce Banda)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언제나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친구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언젠가 여러분 옆자리에 말라위 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이 앉아서 수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엔 쑥스러워 하지 말고 인사하며 악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라위의 속담에 악수하는 손에 사랑이 있다(Chikondi chili m' manja)는 말도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Tionana! (See you!)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괴테, 『파우스트』 중

손선혁 (석사과정)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는다.

내가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을 한다면, / 너는 나를 꽁꽁 묶어도 좋다. / 그럼 나는 기꺼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오로지 찬미할 수 있는 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인생에서의 성취가 1이라면 우리는 나머지 99의 시간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준비하고, 노력하며, 기다리는 데에 써 버린다. 교수는 잘 된 논문의 완성을, 시인은 자신에게 문득 불어올 거대한 영감을, 정치인은 자신이 뜻을 펼칠 시기를 호기롭게 기다린다. 하지만 그것을 훌륭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은 본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나 그것의 성취는 하늘이 주신다." 는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진행을 잘 설명해 준다.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꾼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뜻에 걸 맞는 사람이 되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다만 기다릴 뿐이다. 그 길에는 무수한 실패와 다른 곳으로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기다림이 충분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성취된 순간, 우리는 짧은 성취의 기쁨을 미처 맛보기도 전에 그것들과 연관된, 혹은 그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미래를 다시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 아마 백발이 성성했던 파우스트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에 다시는 순간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 않으리라 결심할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자신 있게 악마와 내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단 한 번 이상은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재에 대한 완전한 몰입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총량을 뛰어넘어 온전히 생(生)하는 시간,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사랑의 성취 역시 인생의 다른 어떤 성취들과 마찬가지로 준비와 계획,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일지라도 하늘이 주신 섭리에 감사하고 탄복하며, 자신의 성취를 소중히 간직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열쇠이자 배움이요, 순간적인 자신과 영원을 결합시키는 최초의 의식이다. 순간이 주는 영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에 따른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영원성이 주는 행복이고,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성취의 쾌감이 클수록 그것에 몰입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혹은 지극히 편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그 성취의 의미를 모욕하거나 깎아 내리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한다. 나 역시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빗나간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다준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주는 정신적, 육체적 쾌락에만 집중한 기형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많은 남자들이 오로지 육체적 쾌락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많은 여자들은 정신적 쾌락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이 육체적 쾌락을 가져온다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의 존재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만족은 정신적 쾌락을 가져다준다. 완전한 사랑의 경우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순간적이면서 영원한 쾌락이다. 하지만 이런 쾌락을 이미 한 번 맛 본 이들이나 아직 이러한 쾌락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지도 모른 채 남들이 만들어놓은 자기 과시 혹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허영심의 덫에 걸려 영원한 사랑의 과제를 영영 미완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남자들은 육체적 쾌락을 맛보기 위해 더 많은 여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고, 여자들 역시 정신적 쾌락의 만족을 위해 더 많은 남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안함, 초조, 의심, 자기 연민 등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부해버린 채 그것을 잘 감당해 내고 인간적인 연민들을 도외시 해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연애에 능숙하다고 말하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한정된 시간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젊음이 실패와 방황과 좌절의 연속인 한 그러한 어긋난 사랑의 순환은 한 번 쯤은 해 볼만 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긋난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성숙함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미성숙한 사랑의 위험성과 완전한 사랑의 행복을 말해 주는 이는 단순히 연애의 즐거움을 말해 주는 이에 비해 극히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불완전한 사랑의 순환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안에서 삐거덕 거리는 증기기관차처럼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상처를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사랑에도 상처가 동반된다. 하지만 상처가 났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사랑이란 자신 안에 있는 노폐물을 모두 걸러내는 과정이다. 어긋난 사랑, 자기 과시와 욕심과 허영심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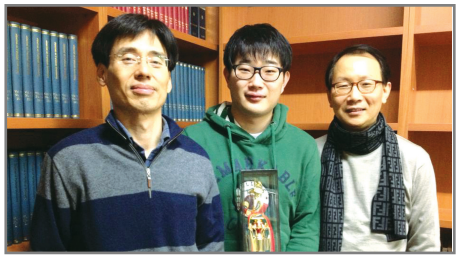
혹자는 그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는 물음을 던져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랑이란 인생의 신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신의 인생만큼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원하지 않게 몇 개의 열쇠를 쥐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열쇠란 반드시 한 번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획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은 그가 기대한 모습으로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무 망설임 없이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외치면서 파우스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부 Rationalales 야구팀

1. 동아리 소개

Rationales는 2012년 창단한 경제학부 유일의 야구동아리입니다. 저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야구에 관심 있는 경제학부 대학원생들이 모여 비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던 팀인 Econus가 확장되어 창단한 팀으로, 신생이지만 역사가 그리 짧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실력에서 모두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단 첫 해에 16개 동아리가 실력을 겨루는 스누리그 B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만만찮은 실력을 과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1부 리그 격인 A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한 단계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ationales는 Econus에서부터 축적된 야구 실력과 노하우, 처음으로 정규 리그에 가입한 신생팀의 패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동아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김영식 교수님과 김세직 교수님, 두 분 교수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었기에 Rationales가 첫 해부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창단 초기에 고가의 팀 장비를 구매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식 시합과 훈련에도 참가하시며 야구와 Rationales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부원들은 동아리와 관련한 부분이나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까지 두 분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 동아리 활동

(1) 스누리그

스누리그는 2월 말부터 가을까지 매년 시즌제로 치러지는 훌륭한 시스템의 교내 리그입니다. A조 18개, B조 16개 팀이 겨루는 큰 규모의 리그이기도 합니다. 매 경기 이후 기록심이 선수 개개인의 기록을 등록하기 때문에 야구의 기본인 기록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스누리그에 정식 선수로 등록되어서 한 시즌을 치르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

입니다. Rationales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스누리그 활동입니다. 긴 호흡으로 한 시즌을 치르면서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팀 내에서 선수들 간에 기록 경쟁, 주전 경쟁을 하는 것은 리그만의 또 다른 흥미요소입니다. Rationales는 2012년에 B조에서 최다승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팀타율, 팀홈런 1위를 기록하는 등 타격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팀의 4번 타자인 김민섭 선수는 홈런 1위를 차지하는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012년에 B조에서 '닥공'을 선보였다면 2013년에는 더욱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여 A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총장배 구기대회, 종합체육대회, 총동창회장배 야구대회

스누리그가 약 9개월 동안 치러지는 장기 레이스라면 매 학기 중간에 치러지는 토너먼트 대회들은 각 팀이 자존심을 걸고 임팩트 있게 맞부딪칠 수 있는 단기전입니다. 2012년에는 1학기에 총장배 구기대회, 2학기에 종합체육대회와 총동창회장배 야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똑같은 참가비를 내지만 한 경기라도 지면 바로 탈락하기 때문에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매 경기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집니다. 규모가 큰 동아리들은 A팀, B팀으로 나누어 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전 선수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보장받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도 참가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12년에는 Rationales에서도 후보 선수들이 Bank Runs라는 이름으로 총장배 구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Rationales는 스누리그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각 토너먼트 대회에서 8강 정도의 성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즌에 토너먼트 우승을 거머쥐려는 선수들의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토너먼트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짜릿한 대회입니다.

(3) 친선경기

스누리그가 잠시 일정을 멈추는 겨울이나 학기가 종강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는 여름 시즌에는 다른 팀들과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친선 경기는 크게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실력을 비교하기 위한 경우, 다른 팀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팀 내부에서 OB와 YB의 대결을 펼치는 경우도 있고, 스누리그에서 못 다한 승부를 겨루기 위해 경기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시합에서는 사용하기 이른 다양한 기술을 시험해보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등, 친선 경기만의 훈훈한 매력이 있습니다. Rationales는 서강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의 동아리나 사회인 야구팀과의 시합도 가지며 적극적으로 친선 경기를 개최해왔습니다. 야구동아리 생활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기쁨의 큰 부분은 역시 실전 시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4) 훈련

Rationales의 기본은 즐기는 야구이며 만화에 흔히 묘사되는 강압적 분위기의 운동부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은 각자 기술을 향상하고 팀의 조직력을 기르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야구를 접하는 선수들도 훈련에 참가하여 타격 폼, 투구 폼을 갖추고 팀에서 야구하는 법을 배우다보면 자연히 실력이 상승하고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야구를 처음 접했음에도 열심히 훈련하여 시즌 말에는 주전으로 기용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훈련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면 몸은 힘들어도 즐겁게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점점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실력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구성원들이 정식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 생활, 특히 학업이 우선시되고 시험 기간에는 훈련을 자제합니다. 저희는 연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4. 선수 모집

Rationales는 수시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면 실전에서 뛰기까지 기본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학동안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에 신입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지원한다면 유니폼을 맞추고 환영회에 참가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구부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포스터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네이버 카페(cafe.naver.com/econbaseball)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BK21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 사업단은 2012년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7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경제사 워크샵 11회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5회

아래는 2012년도 하반기 BK21 사업단의 학술활동의 상세내역이다.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Kang Sh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On The Connection Between Intertemporal and Intra-temporal Trades
Naohito Abe (Hitosubashi Univ.)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its Short-run Effects on Household Purchasing Behavior
Rowena Gray (University of Essex)
Moving on Up: Immigration and Native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1870-1930
Jeffrey C. Ely (The Northwestern University)
Suspense and Surprise
Shurojit Chatterji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ontacting Over Prices
박인욱 (Bristol University)
Continuous Prisoners Dilemma
Robert W. Staiger (University of Wisconsin)
Trade Agreements as Incomplete Contracts & Trade Agreements and Offshoring
Robert W. Staiger (University of Wisconsin)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Bruce Preston (Columbia University)
Fiscal Foundations of Inflation: Imperfect Knowledge
Miguel A. Delgado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Two-Sample Stochastic Dominance Testing Uniform in Covariates
Yoshihiko Nishiyama (Kyoto University)
A simple consistent test for regression function
황성하 (서강대학교)
Larger groups may alleviate collective action problems
Agnieszka Rusinowska (Paris School of Economics)
A Model of Influence Based on Aggregation Functions
Cheng-Zhong Qin (UC Santa Barbara)
A Unification of Solutions to the Bargaining Problem
유혜미 (SUNY-Buffalo)
Wage Volatility and Changing Patterns of Labor Supply
석병훈 (Ohio State University)
Growth and Global Imbalances: The Role of Learning-by-Exporting
이태석 (University of Auckland)
Potential Over-Detection of Jumps with Conventional Sampling Frequencies

경제사 워크샵

김대현 (서울대학교)
1910-1942년 금융조합과 서민금융: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고선 (중앙대), 공저자: 박기주 (성신여대)
The rise of public elementary schooling in colonial Korea
Rowena Gray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Essex)
Moving on Up: Immigration and Native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1870-1930
김신행 (서울대학교)
Korea's chaebols: Adjustment costs of investments and a Tobin's q 1960-2005
박복영 (KIEP)
미국의 소득불균형,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
홍석철 (서강대학교)
Intra-Urban Health Disparities: Survival in the Wards of 19th-Century American Cities
양동휴 (서울대학교)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 부채위기
류상윤 (낙성대연구소)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과 경제제도: 잠사업의 사례
김성남 (서울대학교)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 경남 언양 사례
강진아 (한양대학교)
동아시아화교자본과 조선: 동순태호의 사례
이웅 (KIEP)
Why did quit rates decline in the 1920s? The role of labor demand revisited

Brown Bag Lunch 세미나

BK21 사업단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남국현
저출산 현황 및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김대현
1910-1942년 금융조합과 서민금융 : 시장과 제도
김응식
Accounting for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nsion and Consumption Taxes
남국현
청년층 구직자의 눈높이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이천국
중국 산업부문별 충격과 경기변동
신호철
Asymmetric Trade Protection Leading to not Productivity but Export Share Change: The Korean Case from 1967 to 1993

BK21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신호철 (박사과정생) 싱가포르
Asymmetric trade protection leading not to productivity but to export share change : The Korean case from 1967 to 1993
고은미 (박사과정생) 미국/콜로라도
The Role of Bounded Rationality in Macro-Finance Affine Term-Structure Models
임부루 (박사과정생) 인도/Patiala
Catching Up Vs Advanced Firm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firms
민서 (박사과정생) 인도/Patiala
Technology, size of firms and sectoral productivity: a panel data study of Korean firms
박나리 (석사과정생) 호주/Adelaide
Coincidence of the Shapley Value and the Nucleolus in the Appointment Problem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2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78명 중 166명(전액 장학금 26명), 대학원생 46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3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2012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2년 8월 31일 경제학부 4명의 교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30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012년 제11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2년 12월 24일 소담마루에서 김태성기금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종주(박사과정), 오나래(석사과정), 박현민(학사과정)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2012년 제10회 김태성 기념논문상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재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 기념논문상을 2003년 제정하여 현상공모하고 있다. 2012년도에서는 현정식 · 오상록의 '근로자 선별 장치로서의 비정규직 경력이 구직자-구인자 매칭 균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2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9일(수) 10시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2명의 박사를, 25명의 석사를, 56명의 학사(최우등 10명, 우등 21명)를 배출하였다.

2013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3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3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2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2년 12월 24일 ~ 2013년 1월 29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및 '계량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 인사이동

윤미연 조교가 퇴직하여 고윤정 조교가 신규 임용 되었고 2명(이지혜, 박다운)의 조교가 보직변경을 하였다. 고윤정 조교는 교수지원 업무를, 이지혜 조교는 학생업무를, 박다운 조교는 장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經友의 밤'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 의 주최로 2012년 11월 23일 '경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소속의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사제 간, 선후배 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경제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장단을 포함하여 10여명의 교수들과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 나갔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2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Principles of Economics
Elias Sanidas	International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2 Seminar on Economic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이석배	Studies in statistic for Economists
Jihong Lee	Game Theory and Its Application
Xifang Sun	Microeconomics Studies in Applied Financial Economics
Oyvind Thomassen	Exercises in Economics 2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2013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3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1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1명의 중국인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大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2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6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2012. 2학기에 3명이 파견되었고 2013. 1학기에 3명이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大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발전기금 출연 현황

- **성기학**((주)골드윈코리아 대표이사) 5억원 (장학 및 학술)
- **ASP 22기 동문** 1천만원 (학술)
- **손병옥**(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이사) 500만원 (장학)
- **상대 향상장학회** 2천만원 (장학)
- **김인준**(경제학부 교수) 1억원 (장학)
- **이기석**(시즈웹 대표, 학부모) 500만원 (장학)
- **김경동**(사회학과 명예교수) 30만원(학술)
- **박 승**(중앙대 교수) 50만원(학술)
- **곽명혜**(하워드대 교수) 1억원 (학술)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 mail :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 · 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25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75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① 모집인원 40 명 내외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④ 모집횟수 연 2회(봄 학기 모집 : 1~2월, 가을 학기 모집 : 7~8월)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email : asp@snu.ac.kr **– Home Page** : http://ier.snu.ac.kr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커리큘럼

주제(과목)	이수기간
금융 · 재정	1주
국 제 경 제	4주
경 제 발 전	5.5주
정치 · 외교	2주
교 양	3.5주
총 계	16주

❋ **수업방식** : 매주 월요일 수업, 1일 2강좌 (총 32강좌)
1강좌 : 6시 30분 ~ 7시 45분(75분 강의)
석 식 : 7시 45분 ~ 8시 25분(40분)
2강좌 : 8시 25분 ~ 9시 40분(75분 강의)

❋ 매 기 수강생의 구성에 따라 주제별 시간 편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P 24기 수료자명단

1. **권인원** 금융감독원 국장
2. **김광녕** NH농협금융지주 상무(본부장)
3. **김상근** ㈜상보 회장
4. **김상진** 신한생명보험(주) 부사장
5. **김승훈** NICE신용평가(주) 본부장
6. **김시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7. **김영준**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
8. **김주환** 삼성증권 지점장
9.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10. **김홍수** POSCO 상무
11. **김희창** 한국기업평가(주) 본부장
12. **송맹근** 이트레이드증권(주) 전무
13. **신종한** ㈜일신테크 대표이사
14. **양영식**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장
15. **양진철** 경기도 의회사무처 처장
16. **유기연** 인성산업(주) 대표이사
17. **이명영** SK하이닉스 상무
18. **이민수** KB국민카드 상무
19. **이수경** ㈜이케이하우징 대표
20. **이승우** 딜로이트컨설팅 전무이사
21. **임봉수** 한국가스공사 팀장
22. **전귀상** KB국민은행 본부장
23. **전 융** 금융결제원 부장
24.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25. **조태영** ㈜카페베네 CFO/사장
26. **최석호** IBK기업은행 부장

〈ASP〉 24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